

(인도자용)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4

“벽을 깨고 담을 허무는 것이다.”

마음열기

재미로 보는 MBT 한 줄 요약

ISTJ : “규칙이 친구다. 계획이 어긋나면 표정이 굳는다.”
ISFJ : “남 챙기느라 본인은 항상 마지막. “괜찮아”가 사실은 안 괜찮음”
INFJ : “혼자서 인생 10 회차 시뮬레이션 돌림, 말 안 해도 다 이해해주길 바람”
INTJ : “속으로는 이미 결말까지 다 생각함, 비효율적인 인간들...”
ISTP : “고장 나면 일단 분해부터. 이게 왜 문제지? 말수 적은데 핵심만 툭툭”
ISFP : “감성 충만, 하고 싶은 건 지금, 하기 싫은 건 영원히 안 함”
INFP : “상상 속에서 이미 영화 한 편 완성, 상처는 오래 가지만 곁으론 멀쩡”
INTP :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걸 잊음, “그건 이론적으로 말아야...”로 시작함”
ESTP : “일단 해보고 생각함, 사고는 쳤지만 후회는 안 함.”
ESFP : “조용하면 아픔, 내일? 그게 뭐야?, 오늘 즐거우면 그게 정답”
ENFP : “열정 MAX → 갑자기 관심 OFF, 처음엔 진심이었어.”
ENTP : “토론 = 놀이, 그 논리, 허점 있어. 악마의 변호사 자동 실행”
ESTJ : ““그래서 결론은?” 리더 역할 자연 발생”
ESFJ : “나 빼고 다 친해 보임. 모두가 괜찮아야 본인도 괜찮음”
ENFJ : “인생 상담소 운영 중, 남 인생에 진심”
ENTJ : “목표 설정 → 즉시 실행, 답답해서 내가 함.”

 **당신의 MBTI는? 위 내용이 실제 자신과 맞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나눔

1. 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사람을 외모, 나이, 성별, 학벌 등으로 판단한 경험이 있다면?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힘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내가 무심코 한 생각이나 말 중에서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본 적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예, 인상이 좋으면 성격도 좋을 것이다)

☞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이는 편견이 있다면?(예, “여자는 감정적이라서 결정을 잘 못 한다” / “남자는 요리를 못 한다”)

☞ 내가 가진 편견은 어디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가?

☞ 편견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요한복음 4:3-14

3.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4.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5.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6. 그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 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9.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10.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11.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길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12.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13. 예수님께서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यो.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यो”라고 대답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우물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셨습니까?(7절)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 예수님의 부탁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왜 그런 반응을 보였나요? (9절)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여인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나요?(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यो.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यो”

☞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다음의 단어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성: 남자, 여자, 성격: 내성, 외향)

ex) 여자라서 운전을 못한다.

()라서 ()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라서 () 잘한다. 못한다.

☞ 아래의 글을 읽고 당신의 주변에서 묶는 것과 다리 놓는 것의 예가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로버트 푸트남에 따르면, 사회학자들은 연결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한다. 하나는 묶는 것(bonding)이고 다른 하나는 다리를 놓는 것(bridging)이다. 서로를 비슷한 부류로 보고 깊은 관계를 쌓는 것은 묶는 것이고,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다리를 놓는 것이다. 묶는 활동은 주로 인종이나 경제적 지위가 같은 그룹 내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다리를 놓는 활동은 오직 “밖을 보고 사회적으로 분리된 그 너머의 다양한 사람들까지 망라하는 것이다”

- 묶는 것 :

-다리 놓는 것 :



적용과 결단

사회, 학교, 교회, 직장 그 어디를 보아도 '안쪽'에 소수 집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집단은 대개 공식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별명, 그들만의 농담, 특별 행사 등 미묘한 부분에서 누가 그 집단에 소속 되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C.S 루이스는 [안쪽 고리 (The Inner Ring)]라는 글에서 "인생의 가장 지배적인 요소는 가장 안쪽 고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만 앉으면 더 깊은 안쪽 고리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안쪽 고리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대놓고 예수님께 하늘나라의 안쪽 고리에 넣어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속에서 더욱 안쪽 고리를 갈망하며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해가며 그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안에 담을 쌓아갑니다. 담을 쌓고 '우리'와 '그들'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등을 돌린채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나 친구가 많으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안에 인기 많은 친구가 있으면 종종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림을 받거나 소외받아야 한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나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 소외를 주동하는 무리에 내가 끼어 있다면 또한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나와 친하지 않다고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번 주는 그런 사람에게 문자나 전화 아니 한번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기도